

意識發展의 辨證法的 過程(四)

헤겔哲學의 한 顛倒的 應用

梨專教授 裴相河

그럼으로 이와 가튼 問題는 맑스理論을 云云하며 그것을 썩리 汲히 探求하려 하며 그것을 理論 上으로 擁護하려 하는 所謂 맑스理論家 맑스學者 理論家(奇怪한 存在인)에 限해서 徹底히 問題삼어질 問題이다. 헤-겔哲學은 맑스理論에게 一貫的 方法을 提供하고 있기 때문이다. 題한 바 『헤-겔』哲學과 맑스理論과의 接觸點에 關한 問題는 니르는 바의 맑스 學者에만 限해서 成立될 수 있는 問題이다. 그것의 實踐에 對해서는 모든 썩르썩아哲學과 가티 헤겔-哲學도 또한 相關업는 것이 되고 만다. -이는 理論과 實踐의 區別에서 생겨나는 □然한 結論이다.

그럼으로 吾人은 이와 가튼 理論家의 헤-겔 探求를 爲하여 吾人의 아는 바 限에 잇서서 이에 關한 參考 書籍을 記錄하여 둔다.

헤-겔의 辨證法을 體得하려면 헤-겔 自身の 哲學 그 中에서도 □重要 部門인 Die phanomenologie Geiste (情神現象學)를 읽음이 捷徑일 것 갖다. 그러나 헤-겔의 用語와 推理는 非常히 □□하니 (샤라서 完全한 日本文의 翻譯도 아직업다.)여기에 接觸타가는 도리혀 헛된 時日만 浪費하기 쉬울 것이 때 忠實한 紹介를 哲學史에서어 더 봄도 良好한 方法일까 한다. 이러한 哲學史로써 定評잇슴은 Kuno Fischer-Geschichte der neueren Philosophie(近代史)入卷(一二合部)이다. 이것을 一部分 翻譯한 □上□一□譯이 잇다.

이 맞게 헤-겔哲學의 部分的 翻譯으로 『歷史哲學概論』河野正 通譯, 『論理學』(上) 同 譯이 잇다한다.

四. 世界享樂

以後로 吾人은 本論의 中所謂題를 論述하려 한다. 샤라서 序言에서 말한 바와 가티 헤-겔의 觀念論的 根據를 顛倒한 새로운 立場에 서서 그의 用語와 그의 辨證法的 方法만을 忠實히 紹介함으로써 特히 어셔한 必然性에 依하여 世界鬪爭의 意識은 自然的으로 生成하지 안흐면 안이 되엿는가하는 『

이 『必然性』만을 明白히 하려 한다. 換言하면 닐으는 바, 世界鬪爭의 意識은 決코 個我的 環境에서만 생겨나는 弱者의 一時 情熱的 反抗氣分의 한 變形 임도 아니요, 또는 徹底한 根據업는 單純한 小兒病的 破壞欲서만 우리남도 안일썌 이를 論理的으로 深刻히 探求하여 볼 것 가트면 그의 發生根據는 멀리 또는 깊이 모-든 것의 統一인 哲學的 基礎에 썌리 박혀 잇다는 點만을 表示하려 한다. 搾아서 이와 가튼 哲學的 基礎에서 생겨나는 必然的 意識을 맞치 無謀의 作亂 一時的 □造物처럼 蔑視하며 □制하며 反抗하는 別다른 意識이 存在하고 잇다한들 이는 얼마나 스스로 『必然性!』을 속이고 잇는 自己 □□에 지나지 안는다함도 아울러 檢討하여 볼싸한다.

×

헤-겔 自身の 말을 빌면 辨證法的 根本要素는 한개의 經驗』에 지나지 안는다. 어서한 第一 階段的 存在(正)가 잇슬진대 이는 必然的으로 스스로 自身과 正反對되는 存在를 經驗하게 된다. 이 正反對의 存在가 닐으는 바의 □二 階段的 存在(正)이다. 이와 가티 이미 正이 反을 經驗하게 되면 이곳선 또한 必然的으로 正과 反은 止場되어 第三 階段的 存在(合)에 까지 向提된다 한다. 第三 □□에 잇서서 辨證法的 □□은 一段□을 맞친다. 그러나 이곳서 다시 第三 階段인 合이 또한 스스로 反을 經驗하게 되나니 싸라서 三 階段은 形式 上部 一 階段으로 還元하는 것이다. 이와 가티 해야 最高의 存在 絶對的인 合 絶對者에게까지 일으기 爲하여 辨證法的 過程은 □□되고 잇다. 이와 가튼 辨證法的 過程에 잇서서 그러면 自己意識의 世界鬪爭 또는 世界鬪爭의 自己意識은 어서한 必然的 根據를 가지고 잇슴일싸? 便宜 上 여기에 關한 헤-겔의 論點을 表示하여 두자.

主題	客觀
(第一 階段	世界 享樂)
享樂의 意識	不可 享樂의 現實
(第二 階段	世界 改造)
改造의 意識	不可 改造의 現實
(第三 階段	世界 鬪爭)
鬪爭의 意識	被鬪爭의 現實
(現代의 意識)	

主客군 渾一의 世界平和. 絶對者. 辨證法的 過程의 最後終結. 未來의 課題. 上記에서 分析的 觀察을 取할진대 世界 鬪爭의 意識은 二種의 辨證法的 過

程을 必然的으로 經過하고 있다.

第一種의 過程은

享樂(正)

改造(反)

鬪爭(合)

의 三 個 過程이요, 이를 더욱 細密히 分析하면 다시금 第二種의 過程이 包含되어 있는 것이니 主觀客觀의 對立에서 생겨나는 過程. 卽

享樂의 意識(正)

不可 享樂의 現實(反)

改造의 意識(合) 一段落 終結

不可 改造의 現實(反)

鬪爭의 意識 (合)(現代까지 向揚되어 □□ 中인 意識)(一段落 終結)이 있다.

×

사람은 누구든지 한 가지 共通된 欲望을 갖고 있스니 世界에 있어서 自己自身을 實現하며 自己自身을 滿足시키려는 享樂的 欲望이다. 自己에게 害로운 것을 □한다. 이와 反對로 自己에게 利로운 것을 欲求한다. 이는 生命發展의 自然的 □動이며 따라서 必然的 存在性을 갖고 있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欲望을 否認함과 同一하다. 살고 있는 동안에는 삶 그것을 肯定하고 있는 것이며 삶 그것을 肯定하고 있는 以上 삶의 享樂을 欲求함은 거듭 말할 必要도 업슬만치 自明스러운 事實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必然的인 普通的 欲望에 생겨나는 『世界享樂』의 意識도 또한 普通的인 『必然性』을 갖고 있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世界享樂의 意識은 必然的으로 삶의 第一次의 根原的 意識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이와 가튼 世界享樂의 意識은 비록 그것이 삶의 第一次의 根原的 意識이라 할지언정, 그것은 世界自體(被 享樂的 客觀)를 如實히 肯定한 또는 世界自體를 다 못 아름다운 것, 享樂 할 수 있는 것으로만 無條件으로 前提하고 있는 素朴한 幼稚스런 意識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二, 三歲된 철업는 어린 兒□가 남의商店의 □子を 그냥 그대로 無條件으로(代價를 支拂치 안코) 집어 먹으려고 하는 것 가튼 철업 는 意識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世界를 如實히 肯定하였다는 그 가운데 밋서 世界享樂의 意識은 □□하지 안흐면 안이 될 必然的 宿命이 감추어 있다. 物品賣買의 根本條件을 體得치 못함으로써 남의 □子を 그냥 그대로 먹으려다가 店主의 叱□ 또는 制裁로 말미암아 뜻을 일우지 못하고 우는 어린 兒□의 欲望이 □□하지 안흐면 안이 되는 것과 맞찬가지 이다.